

# 4·19혁명 기념일에 즈음하여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금년 4.19혁명 51주년 기념일이다. 4.19혁명은 한국의 정치발전에 하나의 획기적 전기를 기록한 일대 사건이었다. 4월 혁명은 맨주먹부에 갖기 못한 민중이 강압적인 부패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한 혁명으로 그 주도적인 역할은 학생이었다.

이들 젊은 세대의 기성권위에 대한 불신,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반항, 정의와 의분에 찬 용감한 정신이 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한편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 야당의 꾸준한 투쟁, 언론계의 성원, 그리고 국군의 적절한 행동 및 미국의 우호적인 태도에 힘입은 바 컸다.

최근 이집트의 민주혁명, 리비아의 시민운동,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4.19혁명을 돌이켜 보게 한다.

정부수립 후의 우리나라 정치는 1952년 5월의 정치과동을 계기로 차츰 독재와 부패의 경향으로 기울어져 갔다. 그 후 자유당을 조직하여 정권의 독점을 기도하여 오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종신집권의 길을 마련하고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개정 야당과 언론의 탄압책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0년의 정부통령선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당승리 목적을 무자비하게 야당을 탄압하는 동시에 전국의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전위부대로 만들고, 전국의 유권자들을 3인조, 9인조로 조직하여 상호 감시 하여 공개투표를 시행하고 이것을 다시 경찰 및 그들이 조직한 반공청년단원들이 감시하도록 완벽한 조직망을 짜냈다.

민주당의 대통령입후보자 조병옥박사가 사망하자 이승만은 싸우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인 사실이 되었고, 부통령입후보자 이기붕만의 당선인 문제였다.

이승만의 후계자로 자처한 그는 그의 처 박마리아를 배후 조정자로,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하수인으로 부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감행하였다.

2월 28일 대구에서는 야당 후보자의 강연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에도 중·고등학생 등교를 명하여 이들에 의한 반항적인 첫 데모가 대구에서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민심은 가일층 뒤흔들었다.

투표일인 3월 15일에는 예정대로 부정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이날 마산에서는 의분을 참지 못한 시민들과 학



생들이 쫓겨하여 민주당의 선거주요 선동에 호응하여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고 다수의 시민, 학생을 체포, 구금하였다. 4월 11일에는 1차 데모 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떠오르자 마산시민의 분노는 다시 폭발하였다. 흥분한 군중은 경찰과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전국 학생들의 분노를 사서 각처에서 항의 데모가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4월 19일 서울의 대학, 중·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은 일제히 쫓겨하여 경찰의 제지를 무릅쓰고 시위운동을 전개하니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함께 호응하여 견장을 수 없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량검거를 자행하였으나 시위는 부산, 대구를 위시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4월 25일 대학교수단 데모를 계기로 4일 밤부터 다시 쫓겨하여 26일에는 또 다시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났다.

대통령 이승만은 27일 드디어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자유당 정부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러 허점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이기붕은 처와 두 아들과 더불어 경주의 별관에서 큰 아들 이강석의 권총으로 자살하였다. 국회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내각책임제 헌법으로 개정된 다음 총사퇴하고 선거에 임하여 민주당의 정변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국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이는 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한 것이다. 셋째,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파워(Student Power)의 한국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19혁명은 한국현대 발전사에 있어 영원불멸의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단 신

▲안동천동회(회장 권기태)는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안동시 용암동 금석식당에서 부부동반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수준 총무 사회로 신년회 및 척사대회를 가졌으며 권기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또한 평화동화수회(회장 권태국)는 3월 11일 오후 7시 안동시 태화동 장자방 식당에서 권호정, 기호 고문 등 죽친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그리고 태화동화수회(회장 권형태)는 3월 5일 오전 11시, 안동시 서부시장 장자방회관에서

죽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척사대회를 가졌다. 권형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참석한 죽친 여러분은 현 경계가 어려워지니 참고, 극복하면서 그러나 죽의종으로 후손의 도리를 다해 가지고 말했다.

이어서 권재주 안동화수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권오기 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로 회의를 마치고 척사대회를 하였다.

<권혁세 기자>

### ■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 금오산(金烏山)

■ 향촌 권오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지난호에 이어>

곧바로 구미시 창년회의소(JCD)가 주최하여 금오산특에서 우렁찬 자연보호 메이리가 울려 퍼졌다.

금오산 주차장 오른쪽 계곡 옆에는 금오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아은 길재(吉再) 선생을 제향한 곳이고 그 옆에 채미정이 있는데 이는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사상을 투영한 불사이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이다.

아은 길재는 고려말, 조선초기의 학자였고 목은 이색 초은 정몽주와 함께 삼은 중의 한사람이었으며 그는 양촌 권근(權近) 선생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나중에 성균관 박사가 되어 유생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금오산인이 되어 금오산에서 은둔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금오산은 생육신의 한사람인 김시습(金時習)도 이 산에서 한동안 머물기도 하였다.

금오산은 원래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선산군에 속해 있었다. 이 땅에는 빛나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인 집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선생을 배출한 곳이다.

그는 영남학파의 종조(宗調)가 되었고 문장과 경술이 뛰어나다. 나중에 그의 조의제문(弔義祭文)은 무오사화의



를 건너서 소나무와 잣목이 울창한 산계곡을 따라 바람길로 걸어서 오르면 된다.

이길을 따라가면 케이블카가 내왕하는 열길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흔들면 알아볼 수 있다.

케이블카 종착지와 휴게소를 지나 왼쪽으로 오르면 금오폭포에 다다른다.

폭포는 약 15m 직폭인데, 양 압박 사이에서 물을 쏟는다. 여름에 비가 내린 후에는 수량이 많아 시원하나 겨울은 물이 없어 얼음도 구경하기 힘들다.

가을은 역시 단풍이 최고이다. 압박 사이에 단풍나무는 붉게 불타나. 겨울에는 눈이 많이 불지 아니하나 바람은 세차다. 봄은 역시 철쭉꽃이 좋다.

폭포에서 오른쪽으로 약 30m 압박로를 따라가면 금오동굴이 나온다. 이 동굴 입구는 어른이 서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의 둘레는 약 10평 정도는 좁다.

붙시가 되었다. 이제 산을 계속하여 올라가보자.

본격적인 등산로 입구에는 관리통제소 초소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계곡의 작은 다리

를 건너서 소나무와 잣목이 울창한 산계곡을 따라 바람길로 걸어서 오르면 된다.

이길을 따라가면 케이블카가 내왕하는 열길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흔들면 알아볼 수 있다.

케이블카 종착지와 휴게소를 지나 왼쪽으로 오르면 금오폭포에 다다른다.

폭포는 약 15m 직폭인데, 양 압박 사이에서 물을 쏟는다. 여름에 비가 내린 후에는 수량이 많아 시원하나 겨울은 물이 없어 얼음도 구경하기 힘들다.

가을은 역시 단풍이 최고이다. 압박 사이에 단풍나무는 붉게 불타나. 겨울에는 눈이 많이 불지 아니하나 바람은 세차다. 봄은 역시 철쭉꽃이 좋다.

폭포에서 오른쪽으로 약 30m 압박로를 따라가면 금오동굴이 나온다. 이 동굴 입구는 어른이 서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의 둘레는 약 10평 정도는 좁다.

# 동화마저 변해도 안 변하는 어른들

■ 권태해(작가, 검교공파, 33세)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에게 해 주면 잘 통하지 못하고 곧잘 엉뚱한 질문이나 대꾸를 듣게 된다.

요새 아이들에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씌어 귀해서 가니를 꿇을 때도 있었다고 말하면, 왜 그랬느냐고, 씌어 밥을 못 지어 먹으면 빵을 먹든지 라면이 끊어져 먹으면 되며 왜 배고플 텐데 가니를 꿇고 그랬느냐고 타박을 받을 테니 말이다.

생활이 달라지다보니 의식 또한 많이 변해서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조차도 요즘 아이들에게 예가를 해주면 꼬투리를 잡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요즘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토끼가 거북이보다 잘 뛰었다고 으스스대면서 여유를 부리다가 열심히 기어가서 결승점에 도착한 거북이에게 토끼가 저서 장피를 당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니,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 한다고 하면 요새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시큰둥하게 일쑤이다.

설명을 들어보면 더 가관이다. 토끼가 먼저 달려가서 목표지점에 닿았으면 승부는커녕 게임도 안 되는 것인데 토끼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북이가 그곳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스포츠맨십에서 잠시 쉬다가 실수로 깜빡 잠이 든 것인데 그를 이용한 거북이가 비겁했다. 거북이가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토끼를 깨우고, 거북이가 느리니까 어느 정도 거북이가 앞서기로 토끼와 신사적으로 약속을 하고 동시출발을 해야만 그것이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페어플레이지. 토끼가 잠에서 깬다면 마음 졸여가며 살금살금 그 옆을 빠져 지나간 거북이가 알고 비겁한 승리라고 토끼는 불공정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이들이란 아이들이답게 순진한 맛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보니 너무 영악해지고 되바라져서 훗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일면 두렵기도 하다.

놀부와 흥부 이야기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놀부는 부모한테 재산을 받아 열심히 재산을 불려서 요새말로 하면 재테크의 귀재인데 비해 흥부는 언제나 물러타고 개울러 빠져서 허구한날 마누라 옆구리만 끼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생기는 대로 연년생으로 아이들

만 낳아 자식이 12명을 낳았으니 결국 그 아이들 일할 옷조차 구할 수 없어 명성에 구멍을 12개 뚫어 모두를 고개만 바깥으로 내놓았다 하니 아무리 착하면 무슨 대수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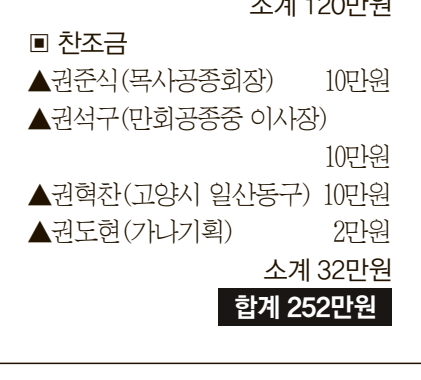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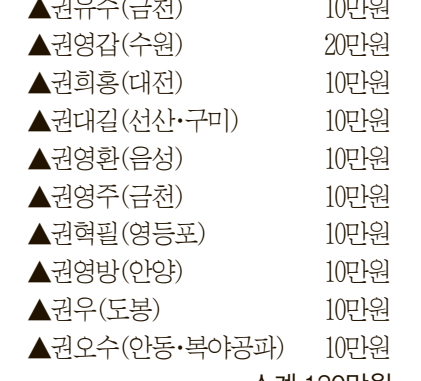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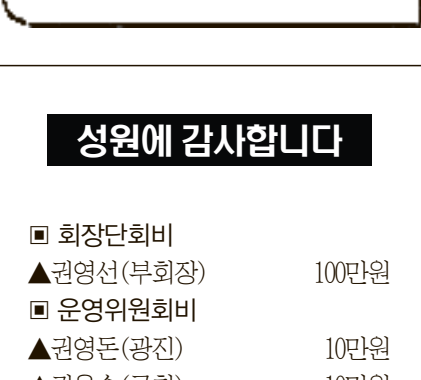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더욱 안 통한다. 개미는 부지런하여 한여름에도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해서 막을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겨울을 지내는데 배짱이는 겨울바람이 한여름 내내 그늘에 앉아 노래만 하며 지나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먹을 게 없어 개미한테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개미는 허리가 빠지도록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관공영에 걸려서 노년에 고생만 하다가 죽었고 배짱이는 주야장창 노래만 하다가 판을 냈는데 그 판이 대박을 내는 바람에 3대에 걸쳐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하면 데오.” 하며 얘기를 거꾸로 만들어서 웃는다.

세상이 변해도 이토록 많은 것이 변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와 같은 구세대의 의식구조이다. 아직까지 ‘전관예우’ 하나 못 고치고, 개리개리 봐주는 ‘제 식구 챙기기’에 ‘제 밥그릇 챙기기’ ‘예능계교수를 추태’ ‘상하이 색제’ ‘폐기된 생선 판매’ ‘저축은행부실’ 등등 오늘날도 신문에는 전근대적인 부정부패는 풍탕 구세대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나 말이다.



## 권 부장 (114)



### 성원에 감사합니다

- 회장단회비 ▲ 권영선(부회장) 100만원
- 운영위원회회비 ▲ 권영돈(광진) 10만원 ▲ 권유수(금천) 10만원 ▲ 권영갑(수원) 20만원 ▲ 권희홍(대전) 10만원 ▲ 권대길(선산-구미) 10만원 ▲ 권영환(음성) 10만원 ▲ 권영주(금천) 10만원 ▲ 권혁필(영등포) 10만원 ▲ 권영방(안양) 10만원 ▲ 권우(도봉) 10만원 ▲ 권오수(안동-북아공파) 10만원 소계 120만원
- 찬조금 ▲ 권준식(목사공종회장) 10만원 ▲ 권석구(만회공종증 이사장) 10만원 ▲ 권혁찬(고양시 일산동구) 10만원 ▲ 권도현(가나기획) 2만원 소계 32만원

**합계 252만원**

### 바로잡음

본지(2011. 3. 1. 3월호, 3면) 창수공종회 정기총회 안내 광고 중 창수공종회 공동대표 중, 권혁준씨를 권오준씨로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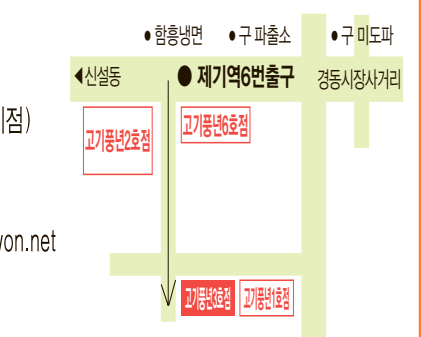
##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 안내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4월 7일 (목) 오후 7시  
▲ 장소 : 고기봉년 3호점 (010-4562-6644) (1호선 제기역 @번들구 좌측골목 20m 지점)

□회장 권혁창 : 0213435-6565 (사)010-6304-6565  
□총무 권오준 : 021577-2919 (사)016-261-2570  
e-mail:kojo571@hanmail.net / 인터넷:www.andongkwon.net

2011년 4월 1일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혁창



## 탄생!! 프리미엄 소형세단 엑센트

현대자동차 CarMaster  
(100-420)서울 중구 무학동 1번지(성민빌딩 1~2층)  
신당지점 : (02)2253-2033  
FAX:(02)2237-2595  
과장 권赫先 (이찬·북아공파, 36세)  
011-222-6766

### 암(癌) 및 성기능장애·혈액순환장애 치료 전문한의원

암(癌) 성장억제·면역치료·자연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말기암 치료</li><li>- 전이재발암 치료</li><li>- 재발방지 치료</li></ul>	성기능·혈액순환장애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기부전 치료제 정기환~귀!</li><li>- 조루증 치료제 정기환~원!</li><li>- 혈액순환치료제 쾌활~원!</li></ul>
---	--

중년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큐오엘 한의원”이 되겠습니다.

큐오엘 한의원 무료 080-000-7579 http://www.qol-clinic.com 전화 02-6927-5000 진료원장 권순관 대체의학연구원장 권혁은 올림

###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 안내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4월 7일 (목) 오후 7시  
▲ 장소 : 고기봉년 3호점 (010-4562-6644) (1호선 제기역 @번들구 좌측골목 20m 지점)

□회장 권혁창 : 0213435-6565 (사)010-6304-6565  
□총무 권오준 : 021577-2919 (사)016-261-2570  
e-mail:kojo571@hanmail.net / 인터넷:www.andongkwon.net

2011년 4월 1일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혁창